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 등록교우 : 차동운 집사, 김미진 성도(자녀 : 차예슬, 차예은, 차예진 어린이)
3. 담임목사님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참석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임직식은 12월 1일(토) 오후 3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이준화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신경미 권사님입니다.
5. 교우소식 : 권용기 집사님이 9월 12일(화)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서 14일(금)에 수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한 주간 휴가를 가십니다. 새벽기도회는 자유롭게, 수요일배는 쉽니다. 단, 금요일기도회는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이준화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영선 권사	최운정 권사	신경미 권사	추석연휴
주일식사담당	험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눔바 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9/1)	주사랑 목장 (9/8)	갈렙.아론목장 (9/15)	에덴 목장 (9/2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2020비전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의 건강회복과 권용기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66번(시편 150편) 다같이
*경배찬송	37장(통 3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4장(통 102장) 다같이
대표기도	오승현 집사
화답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두나미스 중창팀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마 15:22-2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삶의 변화는 나로부터’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 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70장(통 455장) 다같이
기도	최운정 권사
특별찬양	차예슬 어린이
성경봉독	민 14:22 인도자
말씀선포	‘분명 뭔가 달라야 합니다’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82장(통 432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 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쉬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48)

새벽 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85:1-13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수박에 얽힌 진실’

조석(朝夕)으로 선선했다. 여전히 한낮이면 태양 별이 따갑지만, 어느 듯 가을 문턱에 다다른 건 틀림없다. 이제 덥다는 날씨 탓하기에 민망해 이곳 저곳 분주히 손을 내밀어 보았다. 지난 봄, 텃밭에 심었던 아로니아 나무가 여름 폭염에 노랗게 변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너무 무심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다. 심어 놓으면 모든 게 잘 자랄 것이라는 변명과 무지의 소산이다. 텃밭을 나와 교회마당 언저리에 둘러 퍼져 있는 풀 뿌리를 뽑다가 이내 그만 두었다. 저도 생명인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생명 다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 몰려들어 남의 피를 좋아하는 모기의 극성에 황급히 도망치듯 빠져 나왔다. 지난 여름, 풀과 모기와와 치열한 싸움을 했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노고가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다가 예전 개집 앞을 지나치는데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보았다. 나를 닮은 듯, 길쭉하게 잘 자란 수박이었다. 그곳에다 수박 밭을 만든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곳에 수박넝쿨이 저렇게도 잘 자랐는지. 그렇다고 수박씨를 일부러 뿌린 것도 아닌데 말이다. 가만히 옛 일을 더듬어 보았다. 먹다 남은 수박을 하도 하늘이(교회서 키우는 진돗개 이름)가 달래서 한 조각 준 적이 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아마도 그때 하늘이가 먹고서 똥은 씨가 땅에 떨어져 발아하면서 저렇듯 넝쿨을 이루고, 한 덩이 큰 수박을 맺었을 것 같다. 아, 물론 하늘이가 먹은 씨가 장을 거쳐 배변을 통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웠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지금 먹음직한 수박을 수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우연찮게 발견한 수박을 마치 보물처럼 여겨 누군가 볼 새라 수박 넝쿨로 잘 덮어 두었다. 물론 혼자 먹을 요량은 아니다. 다만, 주일학교 개구쟁이들이 채 익지도 않은 수박을 따 버릴까 해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다. 죽지 않는 내 자신의 성정(性情)으로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잘 자라준 수박을 따다가 함께 나누려고 한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알 순 없지만,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쪼개려고 한다. 그리고는 교인들 저마다 한 입씩 베어 문 정겨운 모습을 볼 것이 틀림없다.

Written by 허영진